2026년 5월 1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역대급 랠리 속 눈치 싸움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국 4월 CPI,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2)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이란 협상 진전 여부, 3) 시스코시스템즈, AMAT,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4) 지난주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등에 영향 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320~7,750pt).

CPI, 미중 정상회담 등 대외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만들어낸 증시 랠리의 지속성이 더 중요한 사안. 실제로, 지난주 코스피(+13.6%), 나스닥(+4.5%), 닛케이225(+5.4%) 등 주요국 증시는 주간 급등세를 연출했으며, 주요 반도체주 동반 폭등에서 기인(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1%).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DRAM ETF(편입 비중: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26%)가 13% 강세를 보였음을 감안 시, 주 초반부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추가 레벨업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비슷한 맥락에서 주 중반에 예정된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AMAT(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결과가 반도체 랠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될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8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주 후반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과 코스닥 소외 현상이 심화되며 반도체·대형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전개되며 마감(KOSPI +13.63%대, KOSDAQ +1.2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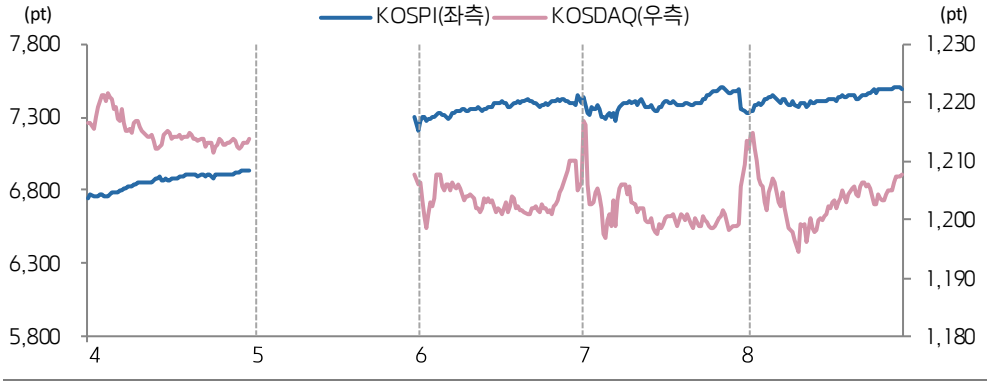
코스피는 주 초반 미국 빅테크 실적 호조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지속 기대가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로 확산되며 5월 첫 거래일(5/4)부터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 이후 5/6에는 6.45% 급등하며 단숨에 7,000선을 넘어섰고, 5/7에는 외국인이 약 7조원을 순매도(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했음에도 개인·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7,490pt까지 상승,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특히 삼성전자가 아시아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 반면 코스닥은 주간 내내 1,200선 부근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연초 대비 상승률도 코스닥은 26.8%에 그친 반면 코스피는 73.8%에 달해 수익률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며 반도체·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가 확산되며 WTI 가격이 배럴당 95달러선까지 급락했고,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자극. 여기에 알파벳·MS·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CAPEX 상향이 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대를 강화시키며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를 지지. 다만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1년 만에 5%를 재돌파하면서 금리 부담과 긴축 경계심리가 재차 부각됐고, 이는 주 후반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업종별로 전기/전자(+22.01%), 증권(+17.6%), 유통(+16.84%), 제조(+15.74%) 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종이/목재(-5.41%), 오락/문화(-4.85%), 부동산(-4.54%), 비금속(-3.31%), 건설(-2.83%)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5조 9,561억원)은 오락/문화(-1,224억원), 일반서비스(-560억원), 전기/가스(-380억원), IT 서비스(-346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1조 8,663억원)은 전기/전자(+32,012억원), 제조(+20,986억원), KOSPI(+18,663억원), 금융(+1,916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5 월 11 일	월	중국	CPI (YoY)	4 월	0.8%	1.0%
			PPI (YoY)	4 월	1.8%	0.5%
		실적	삼성증권			
5 월 12 일	화	EU	ZEW 서베이 예상	5 월	-	-20.4
		미국	소기업낙관지수	4 월	96.0	95.8
			CPI (MoM)	4 월	0.6%	0.9%
			CPI (YoY)	4 월	3.7%	3.3%
			근원 CPI (MoM)	4 월	0.3%	0.2%
			근원 CPI (YoY)	4 월	2.7%	2.6%
		지수	MSCI 분기 리뷰			
		실적	미래에셋증권, KT			
5 월 13 일	수	EU	GDP 성장률 (QoQ, 잠정치)	1 분기	0.1%	0.2%(0.1%)
			GDP 성장률 (YoY, 잠정치)	1 분기	0.8%	1.2%(0.8%)
		미국	PPI (MoM)	4 월	0.5%	0.5%
			PPI (YoY)	4 월	5.0%	4.0%
			근원 PPI (MoM)	4 월	0.3%	0.1%
			근원 PPI (YoY)	4 월	4.3%	3.8%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			
		실적	SK 이노베이션, HD 현대			
5 월 14 일	목	미국	소매판매 (MoM)	4 월	0.5%	1.7%
		발언	보스턴 연은 총재·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회의	미중 정상회담(~15 일)			
		실적	시스코 시스템즈, 소니			
			삼성화재, 삼성생명			
5 월 15 일	금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5 월	8.0	11.0
			산업생산 (MoM)	4 월	0.2%	-0.5%
		발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바 미연준 부의장			
		행사	파월 미 연준의장 임기 만료일			
		실적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파생	미국 옵션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4월 8일 이후 미-이란 전쟁 추가 악화 여부, 2) 미국의 3월 CPI 이후 시장 금리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국 4월 CPI,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2)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이란 협상 진전 여부, 3) 시스코시스템즈, AMAT,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4) 지난주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등에 영향 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320~7,750pt).

8일(금) 미국 증시는 미-이란 협상 교착 상태 지속에도, 중립 이상의 결과였던 4월 고용 지표, 애플(+2.1%)과 인텔(+14.0%)의 칩 공급 계약 소식, 마이크론(+15.5%), 샌디스크(+16.6%) 등 반도체주 수급 쏠림 효과 등에 힘입어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다우 +0.02%, S&P500 +0.84%, 나스닥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5%).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신규 고용(+11.5만건 vs 컨센 +6.5만건)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은 "연준의 매파 입장 정당화"로 작용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4월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vs 컨센 +0.3%)과 5월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4.5% vs 컨센 4.8%)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에 "인플레이션 상방 불확실성 완화"라는 안도감을 제공했던 상황.

지금은 미-이란 전쟁으로 고용, 소비 등 여타 지표보다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민감도가 상승한 시기이므로, 주 중 4월 CPI, PPI 이벤트의 증시 영향력은 높아질 전망. 현재 4월 CPI에 대한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3.7%(YoY vs 3월 3.3%), 코어가 2.7%(YoY vs 3월 2.6%)로 제시되는 등 지난달보다 높게 형성된 상태.

이미 시장에서도 유가 상방 압력을 4월 중 수차례 확인해왔던 만큼, 에너지 품목이 포함된 헤드라인 CPI가 상승할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4월 헤드라인 PPI 역시 5.0%(YoY vs 3월 4.0%)로 컨센서스가 이미 전달보다 높게 형성된 점도 마찬가지. 이를 감안 시, 이번 4월 CPI, PPI는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오더라도, 증시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

그 밖에도, 주 후반(14~15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이번 회담에서는 1) 중국의 이란 중재 여부, 2) 지난 11월 체결했던 관세 전쟁 휴전의 추가 연장 여부, 3) 엔비디아 H200 등 미국의 자국 AI칩에 대한 대중 수출 추가 허용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

사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주 반도체가 만들어낸 증시 랠리의 지속성이 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 실제로, 지난주 코스피(+13.6%), 나스닥(+4.5%), 닛케이225(+5.4%) 등 주요국 증시는 주간 급등세를 연출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주 동반 폭등에서 기인(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1%).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DRAM ETF(편입 비중: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26%)가 13% 강세를 보였음을 감안 시, 주 초반부터 반도체주를 필두로 코스피의 추가 레벨업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비슷한 맥락에서 주 중반에 예정된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 AMAT(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결과가 반도체 랠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될 전망.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인프라 주문(시스코), HBM 및 DRAM 장비 매출(AMAT) 등 이들의 실적 결과 및 가이던스에 따라, 메모리 업사이클 내러티브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동시에 최근 반도체주들의 연이은 폭등에 따른 속도 부담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5월 이후 상승률, 삼성전자 +21%, SK하이닉스 +31%). 지난주 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거래일간 약 6조원 순매수를 기록한 직후, 주 후반 2거래일동안 12조원 순매도(7~8일 누적)로 급선회한 것도 단기 전술적인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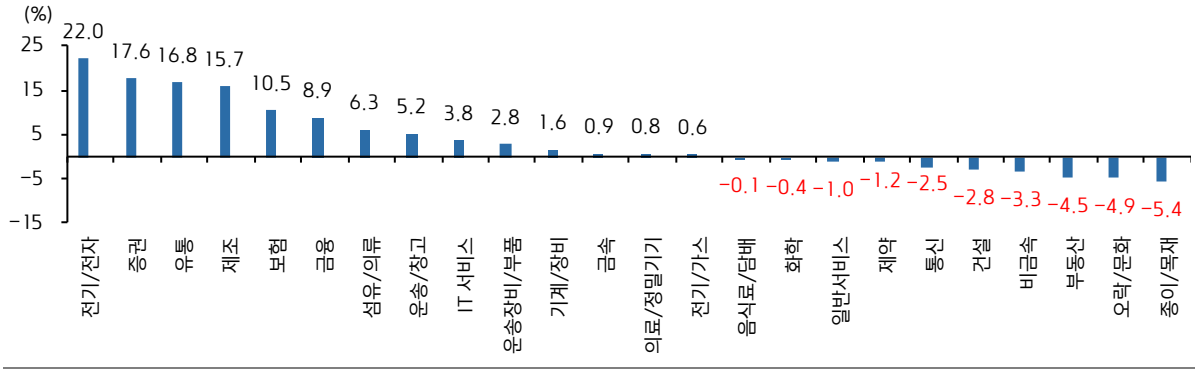
물론 같은 기간 개인(7~8일 누적, +9.9조원)과 금융투자(+3.5조원)가 대규모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피는 지난주 내내 강세를 기록하기는 했음. 다만, 지금 모든 수급 주체들 사이에서 차익실현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에, 주중 코스피가 추가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장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단기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감내하고 갈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7,498.00	0.1	13.6	27.7	77.9
대형주	8,089.45	0.1	15.2	29.2	84.8
중형주	5,150.78	0.2	1.0	16.7	38.4
소형주	2,976.93	0.1	-1.5	8.2	18.3
코스피 200	1,151.17	0.1	16.0	30.4	90.0
코스닥	1,207.72	0.7	1.3	10.8	30.5
대형주	2,905.37	1.0	2.3	8.6	29.1
중형주	1,273.66	0.5	0.7	15.7	41.6
소형주	3,337.70	0.3	0.2	12.0	29.7
코스닥 150	2,027.80	0.2	1.4	7.9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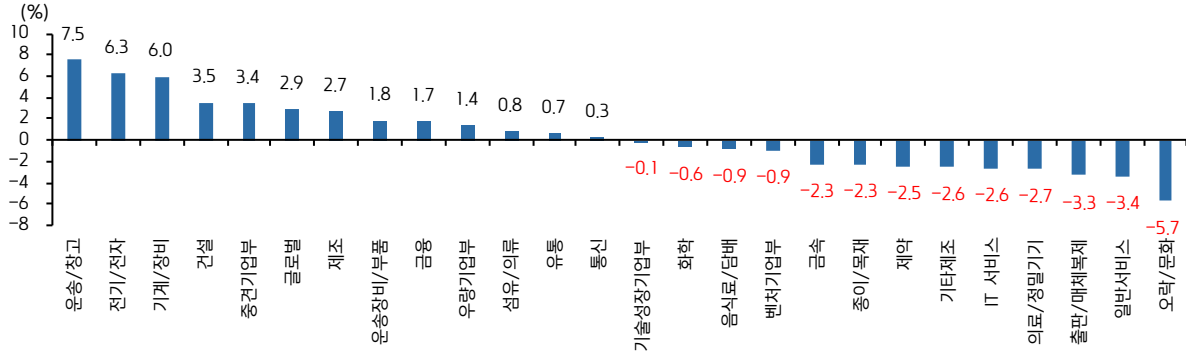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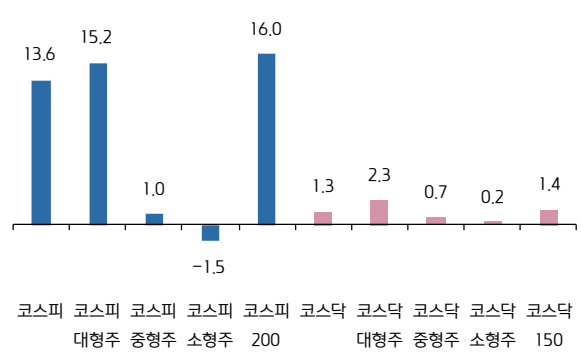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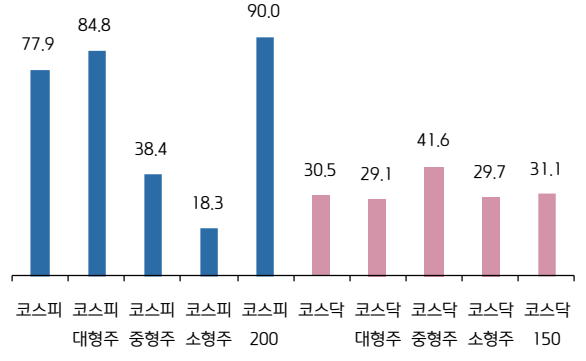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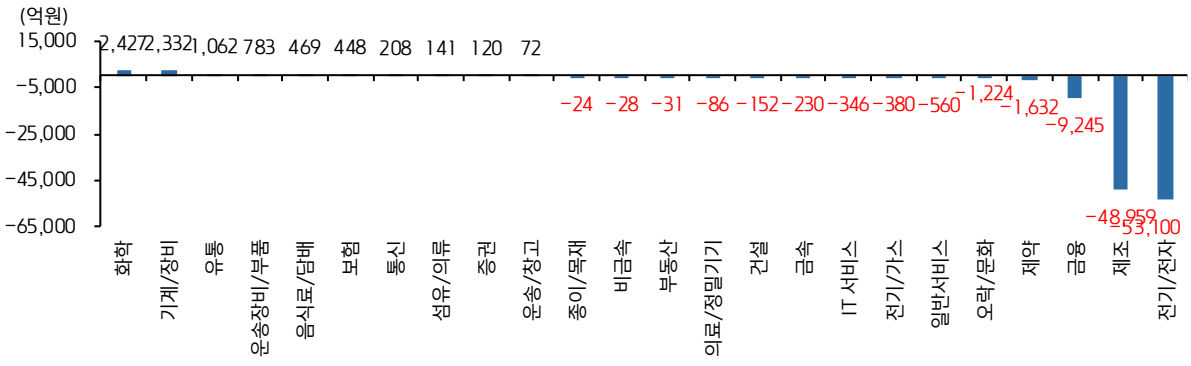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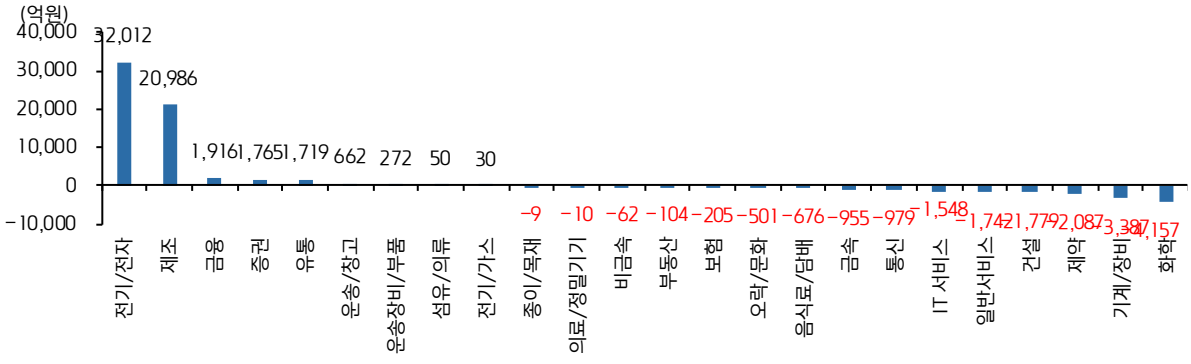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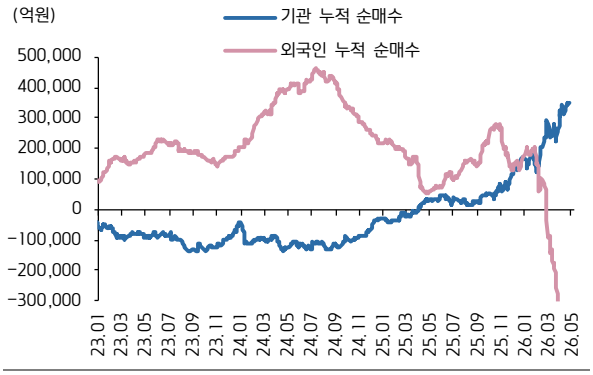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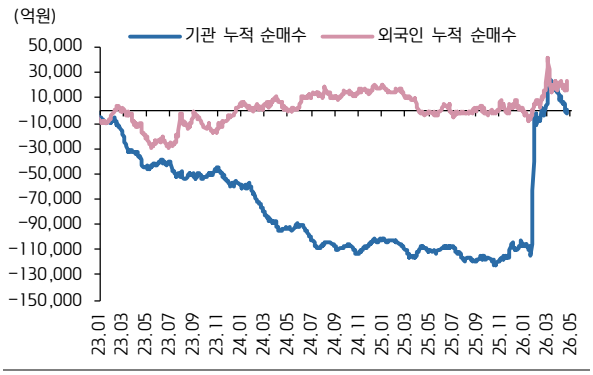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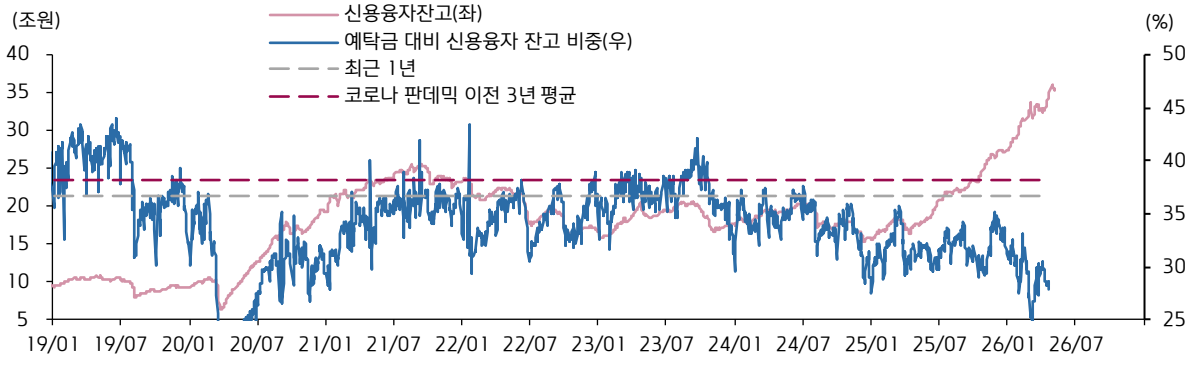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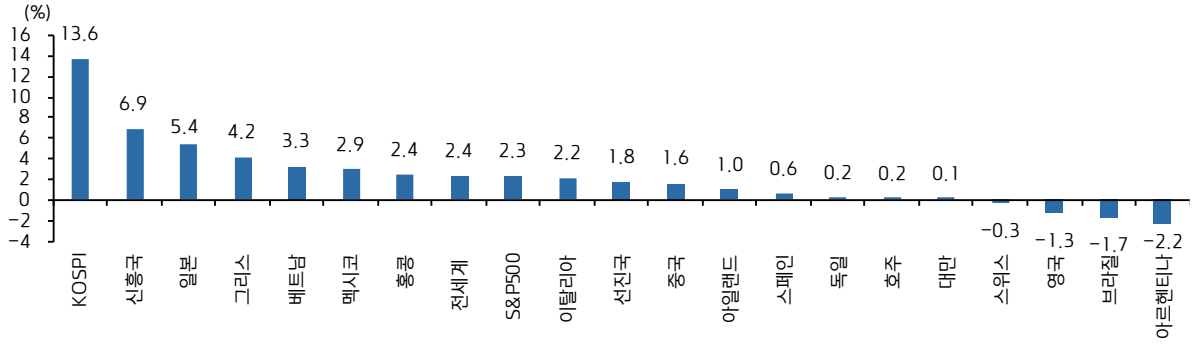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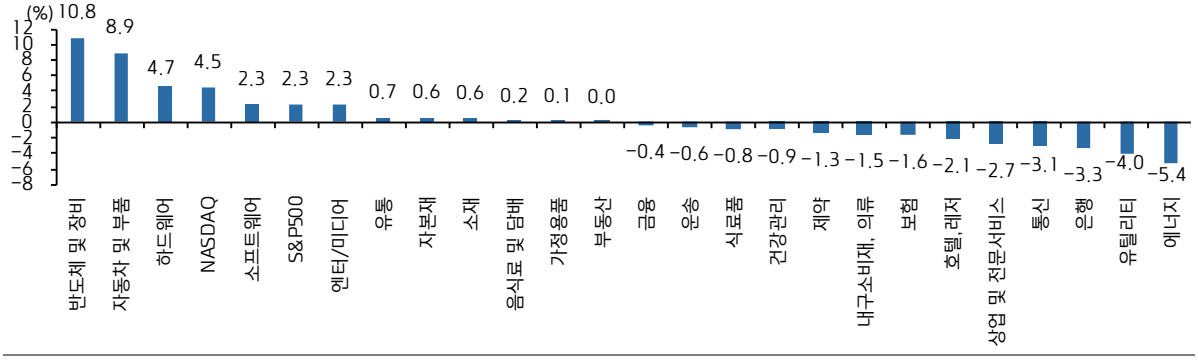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